

장성군 '1000만 관광' 기반 구축 속도

포럼 열고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 방안 모색...홍길동 테마파크 등 답사

장성군이 민·관·전문가들과 손잡고 민선 8기 김한중 군수의 공약인 '1000만 관광시대'를 앞당겨 활짝 열기 위해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장성관광 활성화 포럼'을 열고, 장성관광의 현주소와 장단점, 마케팅 전략 등을 심도 있게 진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지방활력연대 김영미 이사장(동신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시작된 포럼에는 관련단체 소속 주인과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전남관광재단 이건설 대표이사,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이상태 지사장, 한국방문위원회 이양림 대리 등 다수의 관광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남관광재단 이건설 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각계각층의 관광 책임자들이 관광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모이게 되어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넥스트스토리(주) 이승애 이사는 '해남 관광마케팅과 미남축제 성공비결'에 대해 발언하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먼저"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지역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상생방안과 관광상품 유통 솔루션을 제시했다.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임재성 방문의해 팀장은 장성군에 체류형 야간관광지 개발, 백양사 사찰음식을 활용한 미식관광 홍보 마케팅, 홍길동 테마파크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제안했다.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이상태 지사장과 김지호 전문위원은 "현재 장성에는 관광객을 유치할



최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열린 '장성관광 활성화 포럼'에서 김한중 장성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수 있는 핵심 콘텐츠와 관광상품, 숙박 및 쇼핑시설, 관광객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관광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신활력플러스사업단, 관광두레 등에서 활동 중인 주민과 공무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장성호 관광지 전방대 활용 방안 ▲시티투어 운영 등 지역특화 여행상품 개발 ▲2030관광자원 개발 구상 ▲장성문화재단 설립 시 고려사항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포럼을 마친 참가자들은 홍길동 테마파크와 상무평화공원을 답사하고 관광지 활용방안에 대한 토의를 이어갔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관광의 현주소와 장단점, 마케팅 전략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군민 여러분의 동참이 1000만 장성 관광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장흥군 송백정 배롱나무 군락지 '꽃단장'

진입로 등 일제 정비...배롱나무 꽃 만발 포토존 각광

장흥군이 최근 장흥읍 평화리에 위치한 기념물인 송백정 배롱나무 군락지(사진)의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정비에 산림휴양과 공공숲가꾸기 작업단 16명이 투입됐으며, 작업단은 송백정 진입로와 배롱나무 군락지 등을 정비했다.

송백정 군락지 일대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침덩굴이 나무들을 휘감아 경관을 저해하고, 수목 생장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번에 일제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최근 송백정은 배롱나무 꽃이 아름답게 만발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또 포토존으로도 널리 알려지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을 추석 선물은 강진 '연잎전병과자'로

군, 명품 소득작목 육성 박차

강진군에서 나는 '연(蓮)으로 만든 연잎전병과자(사진)가 추석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다.

강진군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건강에 좋은 농산물을 '강진 건강 10대 농식품'으로 선정해 명품 소득 작목으로 육성·상품화하고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연을 선정, 재배기술 보급 및 교육, 유통방안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성전면에서 농업회사법인 ㈜느린진조를 운영하고 있는 서형호 대표가 연을 이용한 연잎전병과자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무농약 쌀과 무농약 연 등 믿고 먹을 수 있는 재료로 생산해 연꽃의 은은한 향기와 자연의 맛 그대로 담은 제품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 간식이다. 또, 두께가 얇아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며 부담없는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물 속의 불로초'라고도 불리는 연은 겨울 제철



식재료로 다양한 음식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피로회복·기침·불면증에도 효과가 탁월해 예부터 귀중한 약재로 사용돼왔다. 특히 비타민C 함유량은 연근 100g당 57mg으로 레몬 한 개 함유량인 70mg과 맞먹는 정도로서 빈혈예방 및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에게 안성맞춤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군, 민선 8기 공약이행 평가단 위촉

함평군이 최근 군수 공약이행 평가단 15명을 위촉하고 민선 8기 공약사항 시행계획 점검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약이행 평가단은 선거 공약 시행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고, 공약 확정 후에는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병용 부군수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주관 부서별 공약사업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해 토론을 했다.

함평군은 민선 8기 군정 운영을 위해 활력있는 지역경제, 오감만족 문화관광, 함께하는 상생복

지,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군정 방침으로 정하고 6대 분야 59개 공약사업 실천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빛그린산단 자동차 산업 중심지 조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체류형 관광지 조성, 함평형 건강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손꼽힌다.

함평군은 공약 이행을 위한 사업 타당성을 최종 검토하고,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내실 있는 공약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빨간 손가락 '나주 밥상' 군침도네

식탁·앞치마 등 천연염색 제품 개발 눈길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운영태·이하 재단)이 '나주 밥상'을 돋보이게 만들 어줄 천연염색 제품 개발·보급에 나서 눈길을 끈다.

나주 밥상은 나주의 환경과 다양한 산지 식재료, 조상들로부터 전해져온 조리법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향토 음식을 뜻한다.

나주 밥상을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향토음식에 대한 조사, 스토리텔링, 표준 요리법, 식재료감 자료 수집, 전문 인력양성 등이 있는데 재단은 특히 나주만의 개성을 지닌 음식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줄 식탁, 수저세트(사진), 앞치마 등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재단은 나주가 자랑하는 전통 천연염색을 활용한 나주다운 식탁 분위기를 시민과 관광객이 향유할 수 있도록 '나주 밥상 천연염색'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천연염색을 활용한 러너, 식탁보, 수저집, 앞치마 등의 상품을 개발했으며 교육·체험을 통해 천연염색 앞치마를 보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나주의 색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식탁을 선정해 천연염색 제품을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허복구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운영국장은 "관광 상품적 측면에서 나주 음식과 나주 천연염색은 따로 따로 있을 때 보다는 함께 조화를 이루고 분위기를 만들어 낼 때 그 가치가 더욱 빛이 난다"며 "천연염색을 통해 나주 밥상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화순군 무주택 청년 지원

월 20만원씩 1년간...신청 접수

화순군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월세 특별지원에 나선다.

화순군은 22일부터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정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지원 규모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한시적이다.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19~34세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취업 여부는 상관없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 등 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7000만원 이하, 원가구 3억8000만원 이하다.

월세 지원은 자격 심사 후 오는 11월부터 시작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활짝 & 힐링이 있는 남원여행

남원의이름

서어나무숲 | 지리산 허브밸리 | 워케이션 에코릿지 | 백두대간 트리어스

|| 숲에서 휴식 온복 서어나무숲 || 허브향기 가득한 지리산허브밸리 || 생태관광 숙박시설 에코릿지 || 나무 위 숙소 백두대간 트리어스 || 천혜의 절경 지리산생사굴계곡

남원시 www.namwon.go.kr